

『아키(秋)』 小考*

- 침묵의 공간을 통해 본 노부코(信子)의 내적변화-

감영희**
kamyol1110@tu.ac.kr

<目次>

- | | |
|-----------|--------------|
| 1. 서론 | 3.2 서재 겸 응접실 |
| 2. 작품의 개요 | 3.3 정원 |
| 3. 침묵의 공간 | 3.4 다실 |
| 3.1 송림 | 4. 결론 |

主題語: 아키(Aki), 노부코(Nobuko), 침묵(silence), 공간(space), 내적변화(internal change)

1. 서론

『아키(秋)』는 1920년(다이쇼9) 4월 발행된 『중앙공론(中央公論)』 제4호에 발표되었다. 당시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 龍之介 이하, 아쿠타가와)는 그의 제자이자 소설가였던 난부슈타로(南部修太郎)에게 보낸 서간문에서

「실제 나는 하나의 난관을 통과했다. 앞으로는 깨달음 뒤의 수행이다(實際僕は一つの難問を透過した。これからは悟後の修行だ。)」¹⁾

라고 하여, 이를 통해 아쿠타가와로서는 자부심을 느끼는 작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²⁾

하지만 1919년 아쿠타가와는 당시 작품경향에 있어서 『노상(路上)』의 중단과 스스로도 실패작이라고 자인하는 『의혹(疑惑)』『요괴(妖婆)』 등의 작품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의 창작활

* 본 논문은 2018학년도 동명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됨.(과제번호/2018F084)

** 동명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1) 芥川龍之介「南部修太郎への書簡」(大正 9년 4월13일자)

2) 다카이 코사쿠(滝井孝作)에게도 “『아키』는 그다지 나쁜 것 같지 않다. 안심하기보다는 운이 좋았던 것 같다. 앞으로 이런 경향의 소설을 자주 쓰게 될 것 같다”는 글을 보내고 있다(芥川龍之介「滝井孝作への書簡」다이쇼9년 4월 9일자)

동에서 정체성을 느끼고 있었던 시기로 알려져 있으며, 그동안 스스로의 예술적 견해로서 ‘예술지상주의’를 표명³⁾해 왔던 그가, 예술 외적인 것으로 전환수정을 기하고자 했던 시기였음은 간과할 수 없다.

「내 자신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 작품『내가 마주친 일(私の出遇った事)』⁴⁾『크리스토 호로 성인전(きりしとほろ上人伝)』⁵⁾ 이외에는 하나도 발표하지 못했다.」⁶⁾

라고 한 것은, 그 해 창작활동에서 나아갈 바를 잃고 정체성을 느끼고 있었던 아쿠타가와와 동요를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아쿠타가와가 자신의 작가적 위기를 자각한 것은 1917년경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일찍이 『라쇼몬(羅生門)』 『이모가유(芋粥)』를 통해 고유의 창작법, 소위 왕조물 형식을 완고하게 이어가고 있던 아쿠타가와는, 그 후 항상 틀에 박힌 듯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취함으로써 신선미와 독창성이 결여된 일종의 타성에 젖은 매너리즘(mannerism)에 빠지게 되며, 그러한 상태를 타파하기 위해 시도한 작품 『츄토(偷盜)』⁷⁾의 실패는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검토된다. 1919년의 「예술 그 외(芸術その他)」(『신초(新潮)』11월)에서 아쿠타가와는,

「예술가가 퇴보할 때, 언제나 일종의 자동작용(自動作用)이 시작된다. 이러한 의미는 같은 류(類)의 작품만을 써내려가는 것을 말한다. 자동작용이 시작되면 그것은 예술가로서의 죽음의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자신 『용(龍)』⁸⁾을 썼을 때 분명히 그러한 죽을 지경에 직면해 있었다.」⁹⁾

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자동작용이란 말 그대로 남이 시키지 아니하였는데도 자기의 결심에 따라서 일, 행동 따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아쿠타가와는 자신의 경우를 역사적

3) 자신의 완성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예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고,

4) 1919년(다이쇼8) 5월 잡지 『신초(新潮)』 발표

5) 아쿠타가와가 1919년(다이쇼8) 잡지 『신소설(新小説)』 발표소설. 기독교 성인 전설집 『레겐더 아우레아(Legenda aurea/黄金伝説)』에 등장하는 성인 크리스트 호로스의 생애를 번안한 소설

6) 1919년 12월 『문예계(文藝界)』

7) 『라쇼몬(羅生門)』의 속편으로 알려진 작품. 작가 자신은 「가장 졸작이다」 「방에 두는 것이 싫다」 「다시 고쳐 쓰고 싶다」라고 평하였다.

8) 작품 『코(鼻)』와 비슷한 내용의 작품으로, 아쿠타가와 스스로 매너리즘에 빠진 작품이라고 인정함.

9) 芥川龍之介(1919) 「芸術その他」 『新潮』11月號, 新潮社, p.113

“芸術家が退歩する時、常に一種の自動作用が始まる。と云ふ意味は、同じやうな作品ばかり書く事だ。自動作用が始まつたら、それは芸術家としての死に瀕したものと思はなければならぬ。僕自身「龍」を書いた時は、明にこの種の死に瀕してゐた。”

제재¹⁰⁾로 대상화(對象化)하면서, 또한 현실로 다시 대상화하려는 소설시도¹¹⁾ 및 예술지상주의적 입장을 통해 예술에 의한 자연주의를 지양대치하였다.¹²⁾ 「그 무렵 내 자신의 일(あの頃の自分の事)」(『중앙공론(中央公論)』1919년)을 시작으로 역사소설에서 현대소설로의 이행이 시행되지만, 그러한 가운데 마침내 자신의 작품에 대한 정체성(停滯性)을 느낀 그는 과거와 다른 전환을 꾀하게 되며¹³⁾ 그러한 방법 모색에 발단을 두고 있는 작품이 곧 『아키』라고 할 수 있다.

1919년의 아쿠타가와를 이야기 할 때, 상기의 작가적 위기문제 외에 또 하나의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들 수 있는데, 여류가인 히데 시게코(秀しげこ)와의 만남이 그것이다. 1919년 6월 10일 「십일회(十日会)」라는 신진문인들의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시게코는 아쿠타가와가 만남을 가진 여성들 중의 한 명으로서, 아쿠타가와와 일기 『가키구츠모쿠로쿠(我鬼窟目録)』에는 ‘수인(愁人)’이라고까지 부르며 연모하던 여성이다. 아쿠타가와가 시게코와 처음 만남을 가졌던 당시 이미 그녀는 한 자녀를 둔 유부녀였다. 하지만 아쿠타가와와는 그녀에 대해,

「십일회에 출석하여 히데 시게코를 만날까? 밤에 잠들지 못한다. 수인(愁人) 시게코를 생각한다. 처음으로 시게코와 둘만이 만나 밤늦게 귀가했다. 심회가 어지러워 멈추지 않는다. 빈번히 수인을 떠올린다. 깊은 밤 『요파(妖婆)』의 속편을 탈고하고, 그 후 침상에 누워 수인을 생각한다.»¹⁴⁾

라고 기술하고 있어, 당시 얼마나 그녀를 연모했는지 짐작된다. 그녀와의 관계는 작품 『아키』의 모티브로서는 그늘에 가려진 듯 현실과 분리되어 투명한 심상의 풍경으로만 시종일관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아쿠타가와와 자신의 감 넘치는 언급에서 작가적 폐쇄상태에서 무엇인가 타개책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당시 그녀와의 만남이었을 것이며, 즉 그것은 아쿠타가와와 작품 활동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으로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추론된다.¹⁵⁾ 또한 사소설적인 『아키』가 쓰여진 배경에는 첫사랑 요시다 야요이(吉田弥生)¹⁶⁾와의 연애행

10) 『今昔物語集』『宇治拾遺物語』 등의 설화집을 대상으로 함.

11) 三好行雄(1968)「作品解説」『杜子春南京の基督』角川文庫, p.76

12) 아쿠타가와와는 중기 문학활동을 통해 자신의 문학 삶과 유사한 예술가를 주인공으로 하는, 이른바 예술지상주의적 입장에서 『호료닌노시(奉公人の死)』『지고쿠헨(地獄変)』『게사쿠산마이(戯作三昧)』 등의 작품을 저술하였다.

13) 감영희(2017)「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아키(秋)』론- 삼각관계와 갈등심리를 중심으로」『일본근대학연구』57집, 한국일본근대학회, p.129

14) “「十日会」に出席し、秀しげ子に会うか?夜、眠れない。愁人 秀しげ子を思う。初めて、しげ子とふたりだけで会い、夜帰宅。心緒乱れて止まず。しきりに愁人を想う。深夜「妖婆続篇」を脱稿。その後 臥榻に横はつて頻に愁人を憶ふ。”『我鬼窟目録』

15) 아쿠타가와가 시게코를 소재로 그린 작품으로 『야부노나카(葦の中)』『하구루마(歯車/復讐の神)』『어느 바보의 일생(或阿呆の一生/狂人の娘)』등을 들 수 있다.

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1914년 이후 약 5여년에 걸친 야요이와의 교제가 파국으로 끝나면서 ‘작품에 일단의 모티브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선행연구도 있다.¹⁷⁾ 아쿠타가와 집안의 반대로 야요이와의 결혼이 결국 이루어지지 못하고 아쿠타가와와는 인간성 이면에 관습을 내세운 추악한 이기심과 마주하게 된다. 그러한 야요이와의 애정과국을 잊어버리려는 듯이 쓰카모토 후미(塚本 文)와의 결혼을 감행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가족 나아가 아쿠타가와 자신의 이기심과도 마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타인의 지성을 무시하거나 음미하고자 노력하지 않는 윤리적 의미의 에고이즘(egoism)적 문제를 핵심으로, 그 후 아쿠타가와와의 인간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검토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발표 당시 『아키』는 작품의 변모 즉 역사소설에서 사실적 현대소설로의 전환을 지향한 작품이라는 평가와 동시에 ‘입안에서 머뭇거리는 듯 애수(口籠るやうな哀愁)’가 떠도는 서정적 작품¹⁸⁾이라는 호평을 받는 한편, 현실성이 부족한 채 작품이 끝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노부코의 결혼에 대해서는 우선 노부코의 자기희생적 결혼이라는 즉 사촌오라비 순키치(俊吉)에 대한 노부코의 사랑을 부정하는 ‘가상의 삶’의 측면과, 근년 노부코의 순키치에의 사랑의 존재를 찾아내고 자매간 사랑의 양보라는 측면도 거론되고 있다.¹⁹⁾ 또 소위 노부코의 삶의 구조는 안정된 경제적 생활을 영위하면서 그 위에 사랑을 양보한 여성의 심정을 보여주는 ‘양면 가치’를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²⁰⁾

본 논문에서는 이상과 같은 『아키』의 노부코 상(像)을 토대로, 특히 3장의 전개를 통해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세 사람의 주인공이 각각 변모한 모습으로 재회하는 과정에 드러난 ‘침묵의 공간’에 대해 주목하고 그러한 공간을 통해 변화되는 노부코의 심리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물론 그것은 각자의 현실적 문제로서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관련 의식이 공간을 만들고 그 안을 흐르는 침묵의 시간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의미전달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며, 침묵의 공간을 통해 그 속에 노부코의 심리변화 및 내적 갈등을 고찰하고 그러한 노부코의 심정변화에 따른 결과분석을 통하여 작품 『아키』로 이어지는 아쿠타가와와의 관념에 대해서도 추론해 보고자 한다.

16) 1892년-1973년: 아쿠타가와가 결혼을 꿈꾼 여성으로 첫사랑으로 알려진 여성

17) 小澤保博(2006)『芥川龍之介『秋』を読む』琉球大学教育学部紀要

18) 室生犀星(1943)『芥川龍之介のひとと文学』上、三笠書房、p.23

19) 三好行雄(1959)『芥川龍之介のある終焉-假構の生の崩壊』『国文学』、p.69

20) 小澤保博(2006)『芥川龍之介『秋』を読む』琉球大学教育学部紀要』69輯、pp.179-180

2. 『아키(秋)』

2.1 정체(停滯)기의 작품

아쿠타가와와 작가적 인생에 있어서 1919년(다이쇼8)과 1920년(다이쇼9)무렵을 그의 창작 활동상에 ‘정체기’로 보는 경향은 지금까지 아쿠타가와를 연구하는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널리 공유되어온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쿠타가와와 작가로서의 인생에 대해, 대표적 일본근대문학 연구자들이 각각 아쿠타가와와의 1년마다 단락별 담당을 통해 ① 「전기(伝記)」, ② 「문단의 동향과 아쿠타가와 평가(文壇の動向と芥川評価)」, ③ 「작품(作品)」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논한 『국문학(國文學)』기획 호 「편년사(編年史)·아쿠타가와류노스케(芥川龍之介)」(1968년11월)에서, 1919년 편을 담당한 도리이 쿠니오(鳥居邦朗)는 그 해 아쿠타가와와 작품에 대해,

「이 해에 불만한 작품은 적다.(この年に見るべきものは少ない)」

「오히려 그 보다 눈에 띄는 것은 실패작이다.(むしろそれより目立つのは失敗作である)」

라고 평가하였다. 더구나 다음 해인 1920년에 대해서도,

「다음해인 다이쇼 9년도 크게 다르지 않은 1년이였다.(明けて大正九年も、おおむね似たような一年であつた)」

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 사기 타다오(鷺只雄)는 『연표/작가독본 아쿠타가와류노스케(年表/作家読本 芥川龍之介)²¹⁾에서, 1919년과 1920년의 아쿠타가와와 작품 활동에 대해 『무도회(舞踏会)』『아키(秋)』『남경의 기독교(南京の基督)』『두자춘(杜子春)』『추산도(秋山図)』 등의 가작을 남겼다고 지적하면서도,

「다이쇼 6, 7년의 눈부신 활약에 비한다면 분명히 말해 이 시기는 정체기로서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시기라고 봐도 무방하다.(しかし、大正六、七年のめざましい活躍に比べれば、はっきり言ってこの時期は停滯期、マンネリを迎えていた時期と言ってよい)」

21) 河出書房新社(1992년 6월)

라고 하여, 아쿠타가와로서는 문학적 ‘정체기’였다는 것을 확실히 지적하였다. 더구나 미야사카 사토루(宮坂 覺)는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와 작품(芥川龍之介人と作品)-신판』²²⁾을 통해,

「예술적인 정체로부터 새로운 분야로의 도전이라는 기대는 맥없이 부서지고 말았다(芸術的停滯から新分野への挑戦という希いは脆くも破れてしまった)」

「문필 활동에서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文筆活動では満足できる成果をあげ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

라고 하여, 1919년 시절의 아쿠타가와 문학활동 상의 정체성에 대한 평가를 보여준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그럼 왜 이처럼 아쿠타가와에게 있어서 1919년과 1920년 무렵이 ‘정체기’였던 것일까라는 의문이 남는다. 분명히 발표된 작품의 질에 대한 물음과 그에 대한 평가결과라고 한다면 더 이상의 연구는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선행연구자들이나 일반의 학계에서 ‘왜 그가 정체기를 맞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나 분석을 행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작품 『아키』의 배경으로서 아쿠타가와에게 있어서 1919년과 1920년 무렵이 문학활동의 ‘정체기’였다는 것을 확인하면서도, 혹시 거기에 ‘작품의 질’과는 다른 아쿠타가와와 작가인생을 어느 정해진 틀에 맞추어 이야기하고자 하는 아쿠타가와론(論)의 함정에 빠진 결과는 아닌지, 우려되는 바가 없지는 않다. 이에 대해서는 문제제기와 함께 ‘아쿠타가와 문학활동 상의 정체기와 그 정체성’에 대한 검토와 고찰을 차기를 기해 논하고자 한다.

2.2 개요

전술한 것처럼 본 작품이 쓰여 진 해는 1920년(다이쇼9)이다. 아쿠타가와와 인생에서 볼 때, 본 작품 발표 2년 전인 1918년, 26세의 아쿠타가와와 쓰카모토 후미(塚本文)와 결혼하고 있다. 아쿠타가와에게 있어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인생의 큰 전환적 사건이었음에 틀림없었을 것이다. 아쿠타가와는 이 시기에 사소설(私小説)적인 작품을 발표하게 되는데,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다고 평가받는 소설 『아키』는 그러한 작품 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아키』에 대해서는 아쿠타가와가 최초로 시도한 심리소설로 알려져 있다. 말 그대로 심리소설이란 인간내면의 심리적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어 관찰묘사한 소설이다. 그러한

22) 翰林書房(1998년 4월)

심리는 즉 순키치(俊吉)를 사이에 두고 자매 노부코(信子)와 데루코(照子) 삼자 간 갈등현상이 아쿠타가와와의 의식과 사고적 특성에 의해 그려지면서, 인간내면의 숨겨진 이기주의와 현실을 수궁하면서 갈등을 받아들이는 주인공 노부코의 회한어린 삶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작품 속에 드러난 대로라면 사랑하는 남성을 여동생에게 양보한 언니 노부코의 시점을 축으로 내면에 숨겨진 미묘한 심리가 고상한 정취로 잘 표현되고 있는 작품이다. 또한 『아키』는 아쿠타가와가 처음으로 현대적 일상을 제재로 자신의 실생활을 주제로 삼은 소설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동시대 작가인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는 서평에서,

「아쿠타가와로서는 보바리즘을 다룬 드문 작품이다. 『아키』는 걸작은 아니지만 유로감(流露感)이 있으며, 아쿠타가와는 이러한 비걸작(非傑作)을 더욱더 많이 썼어야 했다. 이 단편에는 아쿠타가와다운 기교와 기지가 없는 차분한 회색 톤이 드러나 있으며, 더구나 다이쇼 시대의 산문다운 유한적인 느낌의 문장이 싫증나지 않는 작품이다. …중략…시대가 따라주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이 작품이 하나의 시험 작으로 끝난 것은 아쉽다. 여기에는 근대 심리소설로서의 도면이 이미 완성되어져 있어서 다음은 작자의 에너지 지속만을 기다리면 될 뿐이었다.»²³⁾

라고 평하고 있다.

아쿠타가와와의 창작활동은 『라쇼몬(羅生門)』에서부터 그의 유작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작품을 남기고 있다. 초기소설의 주제는 자연주의를 싫어했던 아쿠타가와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세계로 비약하여, 엄격한 현실을 피해 낭만으로 가득한 세계로 회귀하려는 예술지상적 태도로 작품을 써내려갔던 시기였다. 그 대부분은 이지적인 것을 우롱하는 비유의 문학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작품은 마침내 『아키』를 전기로 현실에 기초한 사실적인 소설, 아쿠타가와 자신을 이야기하는 사소설(私小説)로 전환하고 있다. 갈등과 변민, 첫사랑의 상대에 대한 동경과 가정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염세감, 당황하고 고민하며 헤매는 순키치를 통해 아쿠타가와와의 마음과 생각이 잘 드러나 있다. 이러한 순키치를 통해 아쿠타가와 자신을

23)フリー百科事典『ウィキペディア(Wikipedia)』

“芥川にしては「ボヴァリスムを扱った小さな珍らしい作品」『秋』は傑作ではないが「流露感」があり、もっとこういった「非傑作」を芥川はどんどん書くべきだった。この短篇には芥川らしい奇巧や機智はなく、おちついた灰色のモノトオンな調子を出してゐて、しかも大正期の散文らしい有閑的な文章の味はひがあつて、飽きの来ない作品である。かういふ方向を掘り下げ、拡げてゆけば、芥川にとって最適の広い野がひらけたと思はれるのに、時代が熟してゐなかつたせみもあるが、この作品が一個の試作に終つたのは惜しい。ここには近代心理小説の見取図がもう出来上つてゐて、あとは作者のエネルギーの持続を待つだけだったのである。”

三島由紀夫(1956)「解説-芥川龍之介著『南京の基督』」角川文庫

三島由紀夫(1957)『現代小説は古典なり得るか』新潮社

들여다보는 형식은 후에『아쓰키치모노(保吉もの)』물에 이어 만년의 자전적 소설『다이도지 신스케의 반생(大導寺信輔の半生)²⁴⁾』로 이어지게 된다.

『아키』의 대략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노부코는 당시로서는 인테리라고 하는 작가 지망생으로 재원의 여대생이다. 사촌오라비 순키치를 좋아하지만, 동생 데루코가 순키치 앞으로 보낸 연서를 읽고 자신은 오사카 주재 무역회사에 취업을 앞둔 상고출신의 남자와 결혼한다. 남편은 적은 말수에 세련됨으로 품위를 갖춘 듯하지만, 실상은 가계경제(돈)에만 관심을 쏟는 인색한 사람이다. 한편 대학문과에 진학한 작가 지망생인 순키치는 프랑식 야유와 풍자를 즐기지만 농담어린 냉소적 태도는 진지한 성향의 노부코와 대조를 이룬다. 주위에서는 두 사람의 결혼을 자연스러운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여동생 데루코는 노부코가 순키치를 자신에게 양보했다는 사실을 알고 오사카로 시집가는 노부코에게 사과 편지를 보낸다. 노부코는 그 편지를 되풀이해 읽을 때마다 눈물을 흘린다.

다음 해 가을 노부코는 데루코와 순키치의 신혼집을 방문하게 된다. 마침 집에는 순키치만 있다. 데루코가 귀가하기 전 노부코와 순키치는 서로 아련한 미련의 감정을 숨긴 채, 주변 지인들과 소설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귀가한 데루코와의 감격적 대면 후 식사를 마친 노부코는 순키치의 권유로 둘이 정원을 산책한다.

다음날 외출에 나서는 순키치는 ‘귀가할 때까지 떠나지 말라’는 당부를 노부코에게 한다. 두 자매가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데루코는 문득 행복해 하는 자신을 부러운 듯 가리킨 노부코의 표정을 엿보게 된다. 노부코의 결혼생활이 불행하다는 것을 짐작한 데루코는 갑자기 울기 시작한다. 노부코는 데루코를 달래면서 순간 잔혹한 기쁨을 느낀다. 지난 밤 순키치와의 산책을 질투하고 있었던 것이다.

데루코의 집을 나선 노부코는 이제 영원히 타인이 되어버린 동생을 느낀다. 그리고 ‘가을’이라고 되뇌인다.

3. 침묵의 공간

3.1 송림

먼저 노부코의 내적변화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공간으로서 송림을 들여다보자.

24) 1925년(다이쇼14년) 1월『중앙공론(中央公論)』에 발표된 미완작

「먼 송림 속 쓸쓸한 저물녘의 다실(遠い松林の中にある、寂しい茶の間の暮方)」

이라는 표현이 있다. 송림의 현실성은 1장, 2장에서도 그려지고 있으나, 그 속을 흐르는 침묵을 쓸쓸하게 바라다보는 노부코의 시선은 그녀의 무기력과 관련된 내적변화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재회에 의해 그러한 양상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을까. 노부코의 심리적 동요를 보여주는 실례는 노부코가 여동생 부부의 신혼집을 방문할 때이다. 노부코는 여동생 부부의 주거 양상이 평범하다는 인상에 실망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여동생 데루코가 자신을 맞이하러 왔던 것으로 알았던 것과는 달리 자신을 맞이한 것은 데루코가 아닌 순기치였고, 이러한 의외의 상황으로 인해 노부코는 자신이 입고 있던 화려한 코트를 벗으면서,

「묘한 수치심을 느끼는(妙に恥ずかしさを感じ)」

장면과 대조를 이룬다. 경제적 안정이라는 현실성은 노부코에게 외적으로는 화려한 코트를 입혀주었지만, 내적으로는 평범한 주거에 간단히 실망해 버리는 감각을 갖게 된 자신을 알아차리게 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수치심을 느끼는 노부코가 화려한 코트를 벗는 장면을 통해 본래 그녀의 모습으로 되돌아 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전술했듯이 실제 작품 속에서 송림은 몇 번이나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이 표현의 경우는, 노부코의 심리적 동요가 현실상의 해질 무렵처럼 의식되어 표현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송림은 ‘따뜻한 난로가의 행복’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노부코의 가식의 삶이 만든 꿈의 종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상의 송림 속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평범한 노부코를 통하여, ‘따뜻한 행복이라는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 그것이 송림이라는 현실 위에 ‘저물녘’이라는 의식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3.2 서재 겸 응접실

또 하나의 공간으로서 노부코가 안내된 서재 겸 손님방은 두 사람의 지금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선 재회의 장면을 통해 송림의 현실성과 그 영향이 미치지 않는 장소로서의 노부코를 설명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서재 겸 응접실’이 노부코 본래의 공간을 상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사람은 주고받은 말처럼, 전혀 살림살이나 형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것이 노부코로서는 한층 더 사촌오라비와 이야기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했다.(二人とも云ひ合せたやうに、全然暮らし向きの問題には触れなかった。それが信子には一層從兄と、話しているという感じを強くさせた)」

라는 표현은, 본래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시키기에 충분한 것이다. 그러나 때때로 침묵이 찾아온다. 그리고 노부코에게는

「어렵פות이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기분(かすかに何かを待つ心もち)」

을 들게한다. 노부코는 과연 무엇을 기다렸던 것일까?

노부코가 보여준 ‘기다리는 마음(待つ心)’이 지난날 연애감정에서 오는 미련이라고 한다면, 이 장면도 그 연장선에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련이라고 하기에는 노부코의 감정은 상당히 노골적이다. 노부코는 마치 순키치에게 그녀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듯한 태도로 태연한 듯이 순키치의 얼굴을 엿보는데 그 상황을 두고,

「엿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다(窺はずにはいられなくなった)」

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표현은 순키치라면 알아차릴 것이라는 예상을 한 노부코의 태도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장은

「편지조차 변변히 없었던 그와의 2년간의 서먹하고 어색한 기억(文通さへ疎にしまかった、彼これ二年越の氣まづい記憶)」

이 신경쓰이는 그녀와의 사이의 간격을 느끼게 한다. 즉 두 사람 사이에는 연애감정보다도 강한 정신적 결과로서 쌍방의 존재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관계인만큼 이와 같은 침묵 속에는 본문에는 없는 문답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리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상황 바로 전에 그려진 것이 침묵 중에 일어나는 ‘기다리는 마음’ 즉 ‘待つ心’가 아닐까 생각된다.

서재 겸 응접실이라는 공간을 통해 노부코에게는 양립하는 현실과 가식의 삶을 들여다보는 침묵의 공간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3.3. 정원

밤이 깊어지자 순키치는 노부코와 단둘이 정원을 산책하지만 밤하늘의 달을 올려다보며 침묵을 지킨다. 날마다 무기력해져 가는 노부코가 순키치에 대해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생활은 약탈로 지속된다.(人間の生活は略奪で持っている)」

는 순키치의 이론이라고까지 할 만큼 굳고 단단한 생각을 통해 시사된다. 순키치와 노부코가 황폐한 뜰을 거닐다 내려와 자고 있는 닭을 보고, 노부코는 자신을

「계란을 사람에게 뺏긴 닭(卵を人に取られた鶏)」

이라고 생각한다. 순키치를 계란에, 타인을 데루코에게, 알을 빼앗긴 가엾은 자신을 닭에게 비유하고 있다. 이러한 설정에서 순키치는 계란으로서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그것은 자매간 삼각관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순키치는

「인간의 생활은 약탈이군, 작게는 이 계란처럼(人間の生活は掠奪で持っているんだね。小はこの玉子からー)」

라는 말을 자매에게 던지고 있다. 이 순키치의 말은 자신과의 결혼을 두고 자매간의 심리적 암투에 대한 당사자로서의 소박한 발언이라고 생각된다. 즉 순키치는 자신이 계란에 비유하면서 자매사이에서 약탈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납득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여기에 있는 세 사람 중에 가장 계란에 애착이 있는 것은 순키치 자신임에 틀림없다(此処にいる三人の中で、一番玉子に愛着のあるのは俊吉自身に違いな)」

라는 기술에서 계란은 즉 자신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알을 빼앗긴 닭(玉子を人に取られた鶏)’ 이것을 허탈한 노부코 자신의 현재라고 한다면, 계란은 일상의 희생 위에 만들어진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알에 애착을 보이는 순키치의 생활(정원)은 그 자신이 말한 약탈(모순)이 사라진 뒤의

「좁고(狭い)풀이 무성히 우거진(大変草が生えている), 황폐한(荒れた)」

모습의 답답함임에 틀림이 없다. 달은 순키치가 가리키는 이상(가치)인지도 모른다. 그것은 뜰의 구석에 있는 노송나무 가지 끝에 걸려있다. 달과는 반대방향에 더구나 노부코의 의식 속에는 달은「사람에게 알을 빼앗긴」채로 잠들어 있다. 순키치가 말한「알을 빼앗긴 달」이란, 자신의 달(이상)도 좁고 황폐해진 뜰(현실)에서 밖에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것이다. 순키치의 뜰, 그것은 노부코가 언제나 바라보던 저녁 송림의 공간과도 통한다. 거기에는 두 사람이 드러내어 말하지 않았던 현실 속 생활문제가 있으며, 그것을 두 사람은 서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각자가 짊어지고 해결해야 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문제다. 그것을 순키치는 도리어 침묵하는 가운데 서로 나누고 있는 것이다.

3.4 다실

노부코와 순키치가 교환한 침묵의 시간을 해석해 보면 다음날 노부코의 가슴 속을 흐르는 침잠한 듯 가라앉은 마음은 쉽게 이해된다. 그녀의 무거운 마음은 순키치의 무거운 짐까지 보게 된다. 당연히 유쾌한 화제에 대해 이야기 할 기력은 없어진다. 더구나 노부코의 마음은 데루코에게서

「남편의 사랑에 만족하고 있는 신부(새댁)의 마음(夫の愛に飽き足りている新妻の心)」

을 읽고 난 후 우울함으로 기울어진다. 다실에서의 자매의 이야기를 보자.

「데루코는 행복하네(照さんは幸福ね)」

라는 부러움의 시선을 보내는 노부코와는 반대로 데루코는 의연하고 활발한 미소를 지으며 천진스러움을 드러낸다.

「언니야말로 행복하면서(お姉さまだって幸福の癖に)」

라고 부연한다. 노부코의 부러움은 데루코의 천진난만하기까지 한 행복에 대한 신뢰라고 할 것이지만, 데루코는 노부코의 마음을 다 읽을 수 없었다.

「그렇게 생각해?(さう思って)」

라고 무심히 흘러버린 속마음을 노부코는 그러한 대답이 오해를 부를 것이라고 예상되자 곧 후회한다. 그 후 두 사람의 침묵은 서로의 마음의 간격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노부코와 순키치가 서로 이야기를 나눈 침묵과 대조된다.

「형부는 자상하지 않아?(お兄様は御優しくはなくて?)」

두 사람의 마음의 간격은 우선, 데루코의 안타까운 듯한 울림으로 드러난다. 노부코가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부정하면 가능하다. 하지만 작가 아쿠타가와도

「이 경우 노부코의 마음은 무엇보다도 연민을 유발했다(この場合信子の心は何よりも憐憫を反撥した)」

라고 묘사하고 있다.

데루코와의 마음의 부조화는, 노부코가 터치해서는 안 될 부분-현실과의 타협하려는 삶의 방식-즉 연민이야말로 무엇보다 굴욕적이었던 것이다. 고의적으로 대답을 회피한 노부코의 동생에 대한 태도에서 그녀의 진의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과 그대로 무언의 시선을 던지는 태도를 통해서도 진의의 정도를 엿볼 수 있다. 「잔혹한 기쁨(残酷な喜び)」이라는 것은 노부코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반격, 거기에서 나오는 회심(會心)의 미소일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데루코를 위로하는 노부코의 배려는 또다시 데루코의 마음과 어긋나고 있다. 마침내 여동생의 질투를 눈앞에서 본 노부코는 자신도 데루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 한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다실은 상대를 소중히 대하며 일생의 소중한 만남의 기회를 갖는 곳이다. 하지만

「여동생과는 영원히 타인이 된 기분(妹は永久に他人になったやうな心持)」

이라는 글 속에 노부코의 심정이 잘 표출되고 있다. 노부코가 비밀스럽게 의지하고 있었던 데루코의 순수함, 즉 노부코의 자기신뢰에 작용해 왔던 가치 그것이 열은 감상(感傷)속에서 막을 내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4. 결론

이상, 아쿠타가와와 침묵이 주는 공간의 의미는 현실이라는 존재로 투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키』에 있어서 주인공 노부코의 결혼이 사랑을 양보한 문제가 아닌 그녀 자신의 가치문제를 안은 삶의 방식의 연출이라고 한다면, 공간이 주는 의미는 노부코의 삶의 구조를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현실적 상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각자의 현실적 문제로서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지는 않지만 관련 의식이 공간을 만들고 그 안을 흐르는 침묵의 시간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의미전달이 되고 있는 것이다.

침묵의 공간을 통해 비춰지는 노부코의 심리변화 및 내적 갈등, 그리고 노부코의 심정변화는 『아키』로 이어지는 아쿠타가와와 문학적 모색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인공 노부코의 쓸쓸함을 조용히 바라다보며 담담히 투영하고 있는 『아키』의 심리묘사는 공간이 주는 침묵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그것은 곧 아쿠타가와와 관념의 전달이라고 생각한다.

【參考文獻】

- 芥川龍之介(1919)「芸術その他」『新潮』11月號、新潮社、p.113
 _____(1968)『現代日本文学大系 43 芥川龍之介集』筑摩書房、pp.217-227
 _____(2009)「滝井孝作への書簡」『芥川龍之介書簡集』岩波書店(1920年4月9日字)、p.306
 _____(2009)「南部修太郎への書簡」『芥川龍之介書簡集』岩波書店1(1920年4月13字)、p.305
 _____(1968)「あの頃の自分のこと」『現代日本文学大系 43 芥川龍之介集』筑摩書房、p.35
 石谷春樹(2004)「芥川龍之介-あの頃の自分の事-随筆から小説への轉換論」『鈴鹿工業高等専門学校紀要』37卷、pp.75-86
 大岡昇平(1972)「芥川龍之介解説」『日本の文学29』中央公論社、p.25
 小澤保博(2006)「芥川龍之介『秋』を読む」『琉球大学教育学部紀要』69輯、pp.179-189
 三好行雄(1959)「芥龍之介のある終焉-假構の生の崩壊」『国文学』、p.69
 _____(1968)「作品解説」『杜子春南京の基督』角川文庫、p.76
 室生犀星(1943)『芥川龍之介の人と文学』上、三笠書房、p.23
 和田繁二郎(1956)「芥川の『秋』について」『立命館文学』立命館出版部、p.116
 감영희(2014)「아쿠타가와와 대 여성관계-히데시게코(秀しげ子)를 중심으로」『일본문화연구』52집, 동아시아 일본학회、p.9
 _____(2017)「아쿠타가와류노스케의 『아키(秋)』론- 삼각관계와 갈등심리를 중심으로」『일본근대학연구』 57집, 한국일본근대학회、p.129

논문투고일 : 2018년 06월 20일
 심사개시일 : 2018년 07월 17일
 1차 수정일 : 2018년 08월 07일
 2차 수정일 : 2018년 08월 12일
 게재확정일 : 2018년 08월 16일

<要旨>

『아키(秋)』 小考

- 침묵의 공간을 통해 본 노부코(信子)의 내적 변화 -

감영희

본 연구에서는 『아키(秋)』 3장의 전개를 통해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세 사람의 주인공이 각각 변모한 모습으로 재회하는 과정에 드러난 ‘침묵의 공간’에 대해 주목하고 그러한 공간을 통해 변화되는 노부코의 심리에 대해 고찰하였다. 결국 아쿠타가와와 침묵이 주는 공간의 의미는, 현실이라는 존재로 투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주인공 노부코의 결혼이 사랑을 양보한 문제가 아닌 그녀 자신의 가치문제를 안은 삶의 방식의 연출이라고 한다면 공간이 주는 의미는 노부코의 삶의 구조를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현실적 상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정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공간이 주는 침묵은 각자의 현실적 문제로서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관련 의식이 공간을 만들고 그 안을 흐르는 침묵의 시간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의미전달이 되고 있어, 침묵의 공간을 통해 비춰지는 노부코의 심리변화 및 내적 갈등, 그리고 노부코의 심정변화는 『아키』로 이어지는 아쿠타가와와 문학적 모색이라고 할 것이다. 주인공 노부코의 쓸쓸함을 조용히 바라다보며 담담히 투영하고 있는 『아키』의 심리묘사는 공간이 주는 침묵을 통한 곧 아쿠타가와와 관념의 전달이라고 생각한다.

AKI theory

- The internal changes in NOBUKO through the space of silence -

Kam, Young-Hee

This study focus on ‘the space of silence’ which is shown by the three main characters’ reunification after their changes, and look deeply into NOBUKO’s thinking though that space. The meaning of Akutagawa’s space of silence is reflected in the existence of reality. The problem is not about the love that NOBUKO have given up on the marriage, to think that as the way she act her life, then space of silence means the realistic symbolism that makes the structure of life desperate. The silence of space is not specifically described as a problem of reality. However, related consciousness creates “the space” and through the streaming time of silence, readers can understand the true meaning of it. NOBUKO’s emotional change and internal conflicts shown from the space of silence continue on <AKI>, which is literary pursuit of Akutagawa. By looking at the main character NOBUKO’s loneliness in silence reflected on <AKI>, transfer Akutagawa’s idea. it is not about one story of one woman, but rather, it is about Nobuko’s image depictions of one person’s woman who is not one person.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images of woman portrayed in Akutagawa’s work is like a riddle that has readers puzzled.